

## 화랑 담론의 식민성 비판\*

— 1940년대 전반의 화랑 동원 담론을 중심으로

박 균 섭\*\*

### [초 록]

화랑제도는 세계교육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인재양성제도이다. 화랑제도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발생사 및 소멸 과정을 파악하는 데 많은 난점이 따르지만,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에 담긴 기록과 정보를 통해 화랑제도의 성격을 상당 부분 판독할 수 있다. 화랑제도는 도의와 가악과 여행을 통한 수련활동을 통해 신라 시대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물을 길러낼 수 있었다.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을 원용해서 말하자면 화랑제도의 본연은 풍류를 통한 교육에 있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화랑제도는 20세기에 들어, 일제강점기의 관제·관변 연구자들이 화랑 담론을 주도하면서, 그리고 친일 지식

---

\* 이 논문은 한국교육사상학회 2018년 여름 학술대회(2018.8.25, 동서대학교 센텀캠 퍼스)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주제어: 신라의 화랑, 풍류를 통한 교육, 천년 후의 화랑, 대일본제국의 황군, 태평양 전쟁

Hwarang System of Shilla, Education through Poongryoo, Hwarang After a Thousand Years, Japanese Imperial Soldier, Asia-Pacific War

인·문인들이 앞장서서 화랑 담론을 유포하면서 화랑은 신라시대의 인재상과는 달리 식민교육의 용도로 왜곡·굴절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그 성격을 말하자면, 교육도 방법도 사라진 천년 후의 화랑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신라의 화랑이 대일본제국의 황군으로 변신하는 기괴한 장면이기도 했다. 이처럼 화랑제도는 신라시대에는 신라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배출에 기여했으나, 근대의 화랑 연구 및 논의 과정에서 화랑은 태평양전쟁에 출진하는 일본군으로 변신하였다. 천년 후의 화랑은 이처럼 교육에 관한 논의의 장을 벗어나 정치군사적 이용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 1. 머리말

화랑제도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가 도입·시행되기 전의 신라 고유의 교육제도이자 인재양성 및 추천제도였다. 화랑제도는 학교 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계 교육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흐름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처럼 신라는 인재 양성책·등용법으로 화랑제도를 두었으며 이는 신라에 학교제도가 뒤늦게 도입된 배경이기도 했다. 화랑제도든 학교제도든 이는 역사적 현상이지 인간학적 현상은 아니라는 얘기가 될 것이다. 화랑제도는 학교 교육 공간에서 펼쳐지는 교육과는 달리 산수자연과 명산대천을 무대로 한 삶의 일상과 그 연속을 통해 교육·수련활동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세상을 넓게 크게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는 교육활동의 본연과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화랑제도는 학교제도/수업현상의 발생사와는 달리, 그 발단과 전개, 정제와 본질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갔던 모습을 포착하기도 쉽지 않다. 화랑제도는 거두절미한 이야기와 같아서 그 본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인재를 뽑아 쓴다고 하면서 왜 남성이 아닌 여성을 원화(原花, 源花)로 삼고 시작했는

가, 그 후로 원화는 왜 화랑(花郎)으로 명칭이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sup>1)</sup> 하지만, 아무리 거두절미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화랑제도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지원의 대상이었고, 국왕은 화랑의 교육·수련활동, 화랑 관련 동향, 상벌 체계의 적용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화랑은 개별·특별 신청을 통해 국왕의 허락을 받아 종군하여 전과/군공을 세운 경우도 많았다. 그동안 확보된 화랑과 낭도의 명단을 보더라도 화랑제도가 신라식의 인재흡수론과 인력수급책의 핵심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화랑의 기상·기개·정신을 응축하여 부르는 말은 현묘지도(玄妙之道)=풍류도(風流道)=풍월도(風月道)였다. 이는 화랑제도가 단순한 여행·놀이가 아닌 도의와 가악과 여행을 핵심으로 한 수련활동 체계임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사료를 통해 화랑의 명단 확보는 물론 불교 승려가 화랑의 교육·수련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신라 왕실에서는 화랑 및 낭도의 활동궤적/미담사례를 제시하고 추모·현창하는 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설원랑비(薛原郎碑), 사선비(四仙碑), 난랑비(鸞郎碑)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최치원에 의해 작성된 난랑비의 머리말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서지사료로 기록되어있는데, 이는 당시 화랑의 본질과 지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에 해당한다. 김대문의 『화랑세기』(花郎世紀)는 화랑의 활동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일 텐데 이는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열람·인용한 짤막한 기록 말고는 그 이상의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료적 가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화랑 교육의 본질과 방법적 성격을 상당 부분 판독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일본 관제·관변 연구자들의 화랑 연구 및 논의 과정에서는 화랑

1) 이계학(2004), 「외길 인생 40년을 돌아보며」, 『평암 이계학 교수 고별강연록』, 2004.8.27, 한국학중앙연구원, pp. 28-29.

교육에 관한 관심과 논의와 천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를 식민교육 및 식민정책의 용도로 접근·해석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식민성의 자장 안에 포섭된 친일 지식인·문인들에 의해 전시동원체제로 일컫는 1940년대 전반의 상황에서, 조선의 청년·학도는 화랑의 이름으로 소집·동원되어 전쟁터에 끌려갔다. 그 전쟁 동원 양상, 화랑의 동원 장면 분석을 통해 병학일여-군교일치의 성격은 더욱 짙게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시대의 화랑이 양장·용졸로 전쟁터에서 용감무쌍하게 활약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특히 태평양전쟁 기간에 조선의 청년·학도는 대일본제국의 영광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다 죽어가야 했다. 이를 앞장서서 외쳤던 자들이 바로 친일 지식인·문인들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화랑 연구, 특히 1940년대 전반의 화랑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당시 식민교육의 실상을 정밀 판독할 수 있다.

## 2. 일본 관제·관변 학자들의 화랑 연구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김대문의 『화랑세기』와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을 인용하여 화랑의 성격을 정리·제시하였다. 576년(진흥왕 37) 봄에 “비로소 원화(源花, 『삼국유사』에는 原花)를 받들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인재를 알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기고 사람들을 불러모아 집단생활을 통해 각자의 행실을 살펴 거용하기 위해 미녀 2명(南毛, 俊貞)을 선발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얘기는 시작된다. 화랑제도의 발생사 점검 과정에서 화랑의 초기 정원은 2명이었던 사실(화랑의 2명 정원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신라 중·하대로 내려오면서 화랑의 정원이 4명으로 늘어났다는 의견(화랑의 4명 정원설)과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다. 김부식은 화랑의 정체성, 화랑제도의 핵심을 사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신라인은 사람을 알아볼 길이 없음을 근심하여,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무리지어 놀게 하고 그 행실과 의리를 본 다음에 등용하려 하였다. 드디어 미모의 남자를 장식하여 이름을 화랑이라 하고 그를 받들게 하니 도중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或相磨以道義] 가악을 서로 즐기며[或相悅以歌樂] 자연산수를 찾아 여행을 일삼았는데[遊娛山水] 멀다고 하여 가지 않은 곳은 없었다[無遠不至]. 그 과정을 통해 행실의 옳고 그름을 가려 인재를 조정에 천거하였다. 김대문이 “현좌와 충신이 화랑으로부터 나오고[賢佐忠臣從此而秀] 양장과 용졸이 화랑으로 인해 생겨났다[良將勇卒由是而生]”고 말한 것은 이를 일컫는다. 상고·중고·하고 3대의 화랑이 무려 2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의 꽃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행실[芳名美事]은 전기(傳記, 김대문의 『화랑세기』, 연구자 주)에서와 같이 자세하다. 김흠운과 같은 사람도 낭도였는데 나라의 일에 목숨을 바쳤으니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sup>2)</sup>

화랑제도의 수련 과정 및 교육 양상으로 도의·가악·여행을 통한 수련 활동, 현좌·충신·양장·용졸의 배출 과정, 방명미사=미행=효행=선행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앎과 삶의 세계 등을 그려볼 수 있다. 물론 화랑도의 성격이 상대·중대를 지나 하대로 내려오면서 세계관과 가치관의 큰 변화가 일어났음도 확인할 수 있다. 김부식이 말한 도의의 범주와 성격은 화랑단 설립 당시의 교육[7세기 화랑 교육]과 후기 화랑단의 교육[9세기 화랑 교육] 사이의 차이를 감안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후기 화랑단의 교육에서는 화랑단 성립 당시의 교육과는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이는 포함삼교(包含三敎)-접화군생(接化群生)을 지적·정신적·문화적 토대와 배경으로 삼아 수련활동이 펼쳐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sup>3)</sup>

2) 『三國史記』 卷47 「金歆運」.

3) 후기 화랑단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으로 화랑 김응렴(金鷹廉, ?~875)이 신라 48대 경문왕(景文王, 재위: 861~874)에 오른 사례를 들기도 한다(최광식(2016), 「신라의 화랑도와 풍류도」, 『사총』 8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pp. 1-34]. 김응렴

화랑의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도의 연마의 문제는, 유교·도교·불교의 기반 위에서 거론되는 현묘지도(玄妙之道), 풍류도(風流道), 풍월도(風月道), 화랑국선(花郎國仙)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sup>4)</sup> 이를 최치원의 「난랑비서문」을 통해 설명하자면 “나라에는 현묘한 도(玄妙之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風流)라 이른다.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히 갖추어져 있는데, 이는 실로 삼교(三教)를 포함하며 증생을 교화한다[接化群生]. 그리하여 그들이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入則孝於

은 화랑 출신으로서 유일하게 왕의 자리(경문왕)에 올랐고, 그 과정에는 그의 낭도(의 우두머리) 범교사(範敎師)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흥륜사의 승려였던 범교사(『三國史記』 卷11 「憲安王四年九月」)는 진자사, 용천사, 안상법사, 월명사, 충담사 등이 보였던 지적·정신적 방면의 가르침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범교사는 김응림에게 “낭께서 만일 아우(둘째딸)에게 장가를 든다면 저는 반드시 낭의 면전에서 죽을 것”이라는 업포성 발언에 이어 “언니(첫째딸)에게 장가든다면 필시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김응림의 권력욕망을 부추기는 의견을 내놓았다(『三國史記』 卷11 「憲安王四年九月」, 『三國遺事』 卷2 「第四十八景文大王」). 김응림은 범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첫째 딸에게 장가들면서 결국 왕위(제48대 경문왕)를 차지할 수 있었다. 범교사는 승려의 신분이었지만 체면도 버리고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는 권력의지의 소유자였고, 이는 김응림이 최고 권력에 오르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범교사의 행태는 상마도의-상열가와 악-유오산수의 수련/연마과정을 거쳤던 화랑 교육의 전통-풍류도가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최광식(2016), pp. 1-34]. 김응림이 왕위에 오른 후의 통치는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왕은 고립에 빠져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정치적 상황(‘침전에 모여든 뱀들의 비유’)이었고, 왕은 이런저런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을 줄만 알았지 통치를 위한 자체동력(판단·결단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금의 귀는 당나귀의 귀 비유’)이었다. 하지만 설화의 후반부에 뱀과 당나귀로 상징되는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극복하는 지략담이 배치된 것을 통해 그의 임금노릇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강엽(2016), 『삼국유사』 <제48대 경문대왕>주 텍스트의 안과 밖, 『구비문학연구』 43, 한국구비문학학회, pp. 127-158; 이강엽(2017),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해석과 교육, 『우리말글』 75, 우리말글학회, pp. 265-294]. 경문왕의 통치 과정에서 여러 화랑(遼元郎, 譽昕郎, 桂元, 叔宗郎)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일이다[권덕영(2011), 「서평」 신라 멸망을 보는 새로운 시각: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혜안, 2010, 『지역과 역사』 29, 부경역사연구소, pp. 425-432].

4) 『三國史記』 卷4 「眞興王三十七年春」, 『三國遺事』 卷3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家] 밖에 나가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出則忠於國] 공자의 주지 그대로이며, 꾸밈과 조작이 없는 일에 처하고[處無爲之事] 말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行不言之教] 노자의 종지 그대로이며, 어떠한 악한 일도 하지 않고[諸惡莫作] 착한 일만을 행하는 것은[諸善奉行] 석가모니의 교화 그대로이다”고 하였다.<sup>5)</sup>

화랑의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가악을 서로 즐겼다는 사실을 탐구하는 차원에서, 화랑 관련 음악으로 도령가(徒頌歌), 사내기물악(思內奇物樂), 혜성가(慧星歌), 양산가(陽山歌),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현금포곡(玄琴抱曲), 대도곡(大道曲), 문군곡(問群曲) 등을 확보할 수 있다.<sup>6)</sup> 이들 화랑 관련 가악-노래와 음악은 도의를 서로 연마하고 그 실천궁행에 힘썼던 화랑의 삶과 삶의 세계를 표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 음악은 전투정신을 고취하거나 적개심을 드러내는 군가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sup>7)</sup> 이는 화랑도를 전사집단으로 단정하는 견해가 성급한 일반화임을 말해준다.

화랑도의 수련활동은 도의-가악과 함께 여행[遊=遊娛]을 통해 이루어졌다. 화랑도의 여행은 산수자연-명산대천을 탐방·순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화랑도의 여행은 군사훈련, 종교의례, 군사전략, 민심수람이라는 네 가지 의미지향이 담겨있다.<sup>8)</sup> 화랑도의 수련활동의 무대, 여행

5) 『三國史記』 卷4 「眞興王三十七年春」.

6) 화랑의 가악에 관한 출처로는 『三國史記』 卷47 「金歆運」; 『三國史記』 卷32 「樂」; 『三國史記』 卷41 「金庾信上」; 『三國遺事』 卷2 「第四十八景文大王」; 『三國遺事』 卷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三國遺事』 卷2 「孝昭王代竹旨郎」; 『三國遺事』 卷5 「月明師兜率歌」; 『三國遺事』 卷5 「融天師慧星歌眞平王代」 등을 참조함.

7) 박군섭(2006), 「화랑제도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시각 비판」, 『교육학연구』 44(2), 한국교육학회, p. 45.

8) 이문기(2014), 「『삼국사기』·『삼국유사』에서 본 신라 화랑도의 여행」, 『동방한문학』 59, 동방한문학회, pp. 7-48. 화랑 영랑의 수많은 여행지 중의 한 곳이었던 울산 앞바다 천전리의 암각화에 새겨진 “영랑이 업을 이루었다[永郎成業]는 말을 통해

지는 경주 남산, 울산 앞바다, 지리산 일대(영랑점, 영랑대, 소년대, 천왕봉), 황해도 해안(아랑포, 백사정), 오대산·금강산 일대(삼일포, 포구암, 단서암), 강원도 동해안 일원(영랑호, 경포대, 연화봉), 제천 점말동굴, 울진 성류굴 등이었다.<sup>9)</sup>

화랑의 발생사와 전개 과정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화랑제도는 인재양성론/인재흡수론을 표방·지향하는 교육제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천년 후의 화랑, 20세기의 화랑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이마무라도모에(今村鞆),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미시나 아키히데(三品彰英) 등과 같은 일본의 관제·관편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화랑의 본질과 성격을 비트는 일들이 일어났다.<sup>10)</sup> 일단 이를 교육도 방법도 사라진 천년후의 화랑이라고 명명해볼 수 있겠다.

이마무라도모에나 이케우치 히로시는 화랑 연구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이들이 화랑 연구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사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신뢰할 수 없

---

화랑은 공부와 여행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 여행 자체가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안경식(2019), 『신라인의 교육, 그 문명사적 조망』, 서울: 학지사, pp. 200-208).

- 9) 화랑도의 수련활동 무대/여행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로는 『佔畢齋集』 卷2 「遊頭流錄」, 『秋江集』 卷5 「遊金剛山記」, 『退溪集』 攷證卷8 「鏡浦臺」, 『惺所覆瓿藁』 卷1 「白沙汀」, 『研經齋集』 卷14 「丹書巖跋」 등을 들 수 있다. 충북 제천 점말동굴의 입구 암벽에 새겨진 금랑(金郎)과 상란(祥蘭), 경북 울진 성류굴의 암벽에 새겨진 임랑(林郎)과 공랑(共郎)은 신라시대의 화랑의 이름으로 추정된다[한국일보(2019), 「화랑 105명 다녀가다...」 동굴에서 발견된 1200년 전 글씨, 『한국일보』 2019.4.28.]. 이는 김유신의 동굴[中嶽石窟] 수련 기록(『三國史記』 卷41 「金庾信上」)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 10) 최재석(1987), 『한국고대사회사방법론』, 서울: 일지사, pp. 195-197; 최재석(1987), 『한국고대사회사연구』, 서울: 일지사, pp. 431-485; 박균섭(2006), 「화랑제도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시각 비판」, 『교육학연구』 44 (2), 한국교육학회, pp. 27-56.
- 11) 今村鞆(1928), 「新羅の花郎を論ず」, 『朝鮮』 161, p. 19, p. 25; 池内宏(1936), 「新羅の花郎について」, 『東洋學報』 24 (1), 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 所收, p. 535, p. 537.

다고 말한 것은, 그 단편적·분절적인 화랑 관련 사료를 문제 삼아야만, 그들의 의도대로 화랑의 본질을 비틀어 말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김부식은 화랑 사다함이 562년(진흥왕 23)에 낭도를 이끌고 가야 정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이어 사다함의 열전에서는 그가 화랑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562년(진흥왕 23) 이전에 화랑제도가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sup>12)</sup> 하지만 김부식은 사다함과 의 시간차에 대한 아무런 보충 설명도 없이 화랑제도의 성립 시기를 576년(진흥왕 37)조에 기술했다. 물론 연대기적인 서술에서 연대가 불확실한 기사를 그 왕의 말년조에 기록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가 처음부터 화랑제도의 실시 연대가 미상임을 밝혔더라면 혼란은 크게 줄었을 것이다.<sup>13)</sup> 이를 두고도 일본의 관제·관변 연구자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핑계거리로 삼았다.

일본 관제·관변 연구자들은 화랑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소위 일본문화의 정수인 무사도를 통해 타문화(화랑)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화랑 전사집단설을 주장하는가 하면<sup>14)</sup>, 화랑의 존재를 무녀(巫女)·창녀(娼女)·유녀(遊女)·매소(賣笑)·화류(花柳)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화랑집회는 무속·제의적 기능과 성적 유희·향락의 특성을 드러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5)</sup> 이들의 화랑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면, 화랑의 전사적 기능은

12) 『三國史記』 卷4 「眞興王二十三年九月」; 『三國史記』 卷44 「斯多含」.

13) 김상현(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서울: 일지사, p. 525; 김기홍(2003), 「화랑 설치에 관한 제 사서의 기사 검토: 김대문 『화랑세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8, 역사교육연구회, p. 117; 박군섭(2006), 「화랑제도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시각 비판」, 『교육학연구』 44(2), 한국교육학회, pp. 37-38.

14) 鮎貝房之進(1932), 『花郎攷(雜攷4)』, 京城: 近澤出版部, pp. 47-49; 池內宏(1936), 「新羅の花郎について」, 『東洋學報』 24 (1), 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 所收, pp. 540-542; 三品彰英(1943), 『新羅花郎の研究』, 이원호 역, 『신라화랑의 연구』, 서울: 집문당, pp. 257-259, p. 268.

15) 今村鞆(1928), 「新羅の花郎を論ず」, 『朝鮮』 161, pp. 22-26; 鮎貝房之進(1932), 『花郎攷(雜攷4)』, 京城: 近澤出版部, pp. 36-39; 池內宏(1936), 「新羅の花郎につ

고급기능에 속하고, 무속·제의적 기능과 성적 유희·향락의 특성은 수반적 습속에 해당한다는 논점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미시나 아키히데는 신라의 화랑 집회는 한족(韓族)의 남자집회=청년 전사조합(전사단)이자 도의를 함께 닦는 조직체였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미시나 아키히데는, 자신의 주장이 분명치 않은 상상이며 가능성을 제기하는 정도라고 말하면서도, 화랑집단은 원시·고대사회의 청년집회와 동일한 연원과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오늘날 일각에서 화랑의 연원을 삼한시대 청소년 집단에 두는 견해는 미시나 아키히데의 견해를 비판 없이 수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미시나 아키히데처럼 고대사 연구자들이 인류학 이론과 그 성과를 참작하는 과정에서, 그 이론을 피상적 수준과 탈맥락적 상태에서 고대사에 선불리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다. 미시나 아키히데가 화랑을 연구하던 1930년대만 해도 세계 인류학계는 소위 비엔나학파의 문화권설이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였다. 이 문화권설에 의하면 남자집회(청년조직)는 대체로 남방의 농경사회에 분포된 현상이었다. 미시나 아키히데는 화랑 연구를 통해 신라(남방문화권)와 고구려(북방문화권)를 분할하고 고구려를 배제한 채 신라를 일본문화권에 포함시켰다. 미시나 아키히데는 이에 더하여, 화랑 연구에 인류학 이론을 적용하면서, 청년집회의 일반적 경향이 성적 유희·향락을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화랑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학문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폈다. 미시나 아키히데의 화랑에 대한 인류학적 설명—한국문화의 남방기원론에는 이처럼 화랑에서 말하는 꽃의 성적 이미지가 잠복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김부식은 화랑의 개념적 특징을 파악하면서 영호

いて, 『東洋學報』 24 (1), 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 所收, p. 535; 三品彰英 (1943), 『新羅花郎の研究』, 이원호 역, 『신라화랑의 연구』, 서울: 집문당, p. 254, pp. 257-259, p. 267.

16) 三品彰英(1943), 『新羅花郎の研究』, 이원호 역, 『신라화랑의 연구』, 서울: 집문당, p. 42, pp. 257-259, p. 268.

징(令狐澄)의 『신라국기』에 기록된 “귀인자제 중에서 미남자를 선발하여 분을 바르고 곱게 단장하여 이름을 화랑이라 하여 나라 사람들이 다 높이 섬긴다”는 말을 인용하였다.<sup>17)</sup> 비록 앞 뒤 문맥이 끊어진 글이기는 하지만, 영호징은 화랑의 차림새에 대해 크게 놀라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럴만한 이유를 중국측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나라(위진~제량) 전성기에 귀족 자제들은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었다[傅粉施朱]. 당시에는 명사들의 용모를 평할 때, 여성적 기준과 특징을 갖고 있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위진시대 풍류의 철학적인 근거는 도교사상이었다. 그리고 위진시대 명사들의 풍류에 영향을 받아 불교에서도 장엄한 모습을 중시하던 흐름에서 자용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신라 화랑의 꽃의 이미지는 이렇게 중국 위진시대 이래의 도교사상과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다.<sup>19)</sup>

화랑에서 묻어나는 꽃의 이미지를 천착하기 위해 이를 미륵신앙에 걸부시키는 경우도 있다. 화랑이 분을 바르고 곱게 단장한 것은 화랑의 이상인 미륵불의 우미장엄한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국토 인민의 면목이 모두 도화처럼 눈꽃처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것이다.<sup>20)</sup> 김

17) 꽃의 이미지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는 전이해의 한계를 넘어서고 상상력의 빈곤을 견어내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김부식이 화랑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화랑의 활동에 꽃의 성적 이미지가 작동한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는 화랑의 본질을 ‘방명미사’로 규정했을 리가 없다. 정약용은 화랑의 실체가 역사적 변이를 거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화랑인[花郎者] 신라 귀족 여행단체를 일컫는데 [新羅貴遊之名也] 오늘날 무당이나 광대와 같은 천한 무리를[今以巫夫倡優之賤] 화랑이라고 부르는 것은[謂之花郎] 잘못이다[非矣]”고 말한 바 있다(『雅言覺非』卷3 「花郎」).

18) 『顏氏家訓』卷7 「勉學」.

19) 張伯偉(1997), 「花郎道與魏晉風流關係之探討」, 『東方漢文學』13, 東方漢文學會, pp. 159-179.

20) 박군섭(2006), pp. 49-50.

유신을 용화향도(龍華香徒)로 묘사하거나, 진자사가 받들었던 미시랑이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여 미륵선화로 불렸다는 설화는 대표적인 논점에 해당한다.<sup>21)</sup>

화랑의 명칭과 관련하여, 당시 군대의 조직과 상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장군화(大將軍花), 상장군화(上將軍花), 하장군화(下將軍花) 등 무관들이 깃대에 착용했던 길이, 너비, 제원을 달리하는 13종의 장식<sup>22)</sup>을 통해서도 화랑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읽을 수 있다.<sup>23)</sup> 김유신의 경우, 15세(609년)에 화랑이 되었고 50세(644년)에 상장군이 되었다는 시계열을 놓고 볼 때<sup>24)</sup>, 화랑제도와 군사제도에는 동일한 이미지(‘화’랑-상장군‘화’)가 흐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13종의 장식에 관한 내용이 복식에 관한 조가 아닌 무관에 관한 조에 실린 것을 보더라도 꽃의 이미지는 군사조직에서도 하나의 의미영역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sup>25)</sup>

그런데 화랑을 전사집단으로 규정한 일본의 관제·관변 연구자들의 공통점은 화랑집단이 성립 당시 및 성시와는 달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사적 기질이 변모·변질되었다는 견해를 취한 데 있다.<sup>26)</sup> 특히 아유가이 후사노신은 화랑의 전사적 기질, 그 기백이 소멸된 사상적·종교적 배경으로 유교·불교·도교와 같은 외래사상의 유입과 습합을 들었다.

21) 『三國遺事』 卷3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22) 『三國史記』 卷40 「武官」.

23) 이문기(1990),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의 사료적 검토」, 『역사교육논집』 15, 역사교육학회, pp. 34-35.

24) 『三國史記』 卷41 「金庾信上」.

25) 『三國遺事』 卷33 「色服」, 『三國史記』 卷40 「武官」, 박군섭(2006), p. 50.

26) 鮎貝房之進(1932), 『花郎笈(雜笈4)』, 京城: 近澤出版部, pp. 51-53; 池內宏(1936), 「新羅の花郎について」, 『東洋學報』 24 (1), 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 所收, p. 542; 三品彰英(1943), 『新羅花郎の研究』, 이원호 역, 『신라화랑의 연구』, 서울: 집문당, p. 196.

아유가이 후사노신은 화랑의 전사적 기질이 둔화·소멸된 근거로 신라의 건당유학생 파견, 국학 설립, 독서출신과 설치 등을 지적하고 화랑의 기백은 유교제도의 채용과 더불어 사라졌다고 단정하였다.<sup>27)</sup>

일본 관제·관변 연구자들의 화랑 연구에서는, 화랑이 예전의 전사집단으로서의 고급기능은 상실하고 무속·제의적 습속과 성적 유희·향락의 특성만이 화랑의 이름과 함께 민간의 잔존 습속으로 전해졌다는 주장이다.<sup>28)</sup> 물론 화랑의 잔존 습속을 드러낸 의도는 그것이 한국사회의 반사회적인 악풍의 온상이자 반국가적 반란세력으로 폭주할 위험이 높은 습속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특히 한국 무속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접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전근대의 무당은 팔시와 천대의 대상이었기에, 이를 ‘어둠의 무속사’ 내지는 ‘살해당한 무당의 역사’라고 규정하기도 한다.<sup>29)</sup> 무속은 반치료적 주술을 일삼는 저주의 무속과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는 반역의 무속으로 나눌 수 있다.<sup>30)</sup> 반면 오늘날의 무당은 고통을 달래주고 복을 빌어주는 선량한 종교인으로 기억되기도 하는데, 이는 한국 무속 연구에서 무당의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이해하려는 낭만적인 경향이 대세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sup>31)</sup> 하지만 이처럼 무속에 대한 관대하고도 우호적인 평가는 일본 관제·관변 연구자들의 사고 범주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어둠 속의 무속—저주와 반역이었다.

일본 관제·관변 연구자들의 화랑 연구에서 소위 전사집단으로서의

27) 鮎貝房之進(1932), 『花郎攷(雜攷4)』, 京城: 近澤出版部, pp. 52-56.

28) 三品彰英(1943), 『新羅花郎の研究』, 이원호 역, 『신라화랑의 연구』, 서울: 집문당, p. 267.

29) 최중성(2013), 「어둠 속의 무속: 저주와 반역」, 『한국무속학』 27, 한국무속학회, pp. 7-34.

30) 최중성(2013), p. 7.

31) 최중성(2013), pp. 7-34.; 김인회·정순목(1974), 『한국문화와 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 203-227.

고급기능을 거론한 것은 신라 화랑도와 일본 무사도의 접촉을 모색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그들은 김대문이 『화랑세기』에서 언급한 인재배출론, 최치원이 「난랑비서」에서 표상한 현묘지도론,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규정한 방명미사론 등에 유의하기보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에 돌진하는 화랑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골몰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6~7세기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위협 속에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십대 중·후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화랑집단을 죽음의 미학으로 유인하여 사지로 내몰아 장렬한 죽음을 맞도록 부추겼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기도 했다.<sup>32)</sup> 일본 관제·관변 연구자들의 화랑 연구에는 그들의 식민적 욕망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분명 조선의 청년·학도를 죽음의 미학으로 유인하여 전쟁의 제물로 삼고자 하는 욕망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화랑 담론은 고대 일본정신과 고대 조선(신라) 정신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내선일체의 증거로 활용되었고, 특히 강점 말기에는 태평양전쟁에 조선의 청년·학도를 학병으로 차출·동원하는 담론에 적극 활용되었다.<sup>33)</sup>

### 3. 친일 지식인·문인들의 화랑 동원 담론

조선의 청년·학도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전쟁 동원 양상으로는 중일전쟁 발발(1937.7.7) 이후에 실시된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95호,

32) 권덕영(2012), 「화랑 관창의 추억」, 『신라사학보』 24, 신라사학회, pp. 51-88. 덧붙이자면, 신라 화랑의 죽음의 미학은 국가 차원의 보상과 추증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마련된 것이었다(『三國史記』 卷47 「奚論」, 「素那」, 「官昌」). 품일이 아들 관창을 죽음의 전쟁에 내몰면서 했던 말은 “오늘은 공명을 세워[今日是立功名] 부귀를 취할 때[取富貴之時]”라는 말이었다(『三國史記』 卷47 「官昌」).

33) 정중현(2006), 「국민국가와 화랑도: 애국계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 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 (4), 한국학중앙연구원, pp. 179-206.

공포: 1938.2.22, 시행: 1938.4.3)과 태평양전쟁 발발(1941.12.8) 이후에 조선인-대만인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지원병(학도병)을 모집하기 위해 실시된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육군성령 제48호, 공포: 1943.10.20, 지원접수: 1943.10.25~11.20, 징병검사: 1943.12.11~20, 입영: 1944.1.20)을 들 수 있다.<sup>34)</sup> <육군특별지원병령>이든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이든 이는 전쟁 인력의 단순 동원을 넘어 반도의 일본화=내선일체의 구현이라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목표로 삼은 것이었다. 양자 모두 해당되는 얘기이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는 조선의 청년·학도를 향해 자원입대라는 그럴듯한 모양새—동원의 논리를 정교화하는 일에 친일 조선인 지도층 인사들이 적극 나섰다.<sup>35)</sup> 학도병 자원입대를 부추겼던 조선인 지도층 인사들은 일반적으로 친일 지식인·문인들로 규정할 수 있지만, 당시의 동원 논리 작성 과정에서는 선배격려단(先輩激勵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sup>36)</sup> 식민권력·강점세력은 학도병의 자원입대에 가족을 앞장세워 이를 부추기기도 했지만, 동원 논리의 구축 및 전개 과정에 학교-군대-사회의 선배를 동원하는 방법을 적극 활

34) 류시현(2012), 「태평양전쟁 시기 학병의 감성동원과 분노의 기억: 학병수기집 『청춘만장』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pp. 104-105.

35) 류시현(2012), pp. 106-108.

36) 당시의 선배격려단 결성 시점(1943)을 기준으로 1920년대에 출생한 조선의 청년·학도에게 선배들은 주로 1880~90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참고로, 선배격려단의 주요 참가자였던 최남선은 1890년생, 이광수는 1892년생, 김연수는 1896년생)를 일컫는 것으로, 이들은 일찍부터 소위 민족 구성원의 계몽에 앞장섰다. 조선의 청년·학도를 사지로 내몰았던 선배들은 훗날 그들의 전쟁 선동/협력이 조선 민족을 위한 행위였다고 변명했다. 여기에 귀한 학병들의 기억에 주목해야 할 까닭이 있다. 귀한 학병들이 1970~80년대에 남긴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일본제국주의를 손쉬운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작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선배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이로 인해 민족공동체가 겪는 슬픔의 내면을 직시·성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친일파 청산이라는 분노와 치유 과정을 간과하도록 만들었으며,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서도 응당 표해야 할 분노의 토대를 빼앗고 말았다(류시현(2012), pp. 100-101, p. 112, pp. 114-116, p. 131).

용하기도 했다. 친일 지식인·문인들의 학도병 동원 논리는 조선의 청년·학도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동족 살해 행위와 같은 것이었다.<sup>37)</sup> 그 동족 살해 행위에 친일 지식인·문인 집단이 투입된 셈인데, 이들은 선배로서 학도병 지원을 격려하는 과업에 매진했고,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신라의 화랑제도를 십분 활용하기도 했다.

친일 지식인·문인들의 화랑론이 주로 1940년대 전반에 전개된 사실도 화랑의 동원을 통해 조선의 청년·학도를 전쟁에 내몰기 위한 몰상식과 무책임과 광란의 언설이 작동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1940년대 전반의 문학은, 전쟁에 관한 보고문학의 형태가 전쟁문학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국민문학의 이름으로 수렴되었다.<sup>38)</sup> 친일 지식인·문인들은 이처럼 친일적 기치 아래 문장보국/국민문학의 길을 걷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화랑마저 소환·동원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은 수상쩍은 태동도 문제였지만, 그 작동의 성격과 방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1940년대 전반의, 화랑이 전쟁에 동원되는 장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장면#1~5는 각각 원문 인용에 문헌 해석을 덧붙인 것임).

장면#1. 이광수의 화랑 동원<sup>39)</sup>

이광수는 역사소설 『원효대사』(『매일신보』 1942.3.1~10.31 연재)를 통해 원효를 화랑 문노(文弩)의 문인이자 전쟁에 앞장서는 존재로 그려냈다. 이광수는 화랑의 연원과 역사를 밝힌 『선사』(仙史)를 『신사』(神史)로 바꿔 기술하였는데 이는 그가 일본의 신도사상에 자발적으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광수는 원효의 정체성을 화랑으로 규정하고 『법화경』과 『화엄경』을 전쟁주의의 관점에서 재

37) 류시현(2012), p. 111.

38) 이해진(2008), 「전쟁과 문학: 총력전하의 전쟁문학 작법: 『보리와 병정』, 『전선시집』,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p. 299.

39) 이광수(1942, 1975), 『원효대사(상, 하)』, 서울: 삼중당.

해석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무분별적 사고를 부추기고 전쟁을 성전이라 추동하는 일에 앞장섰다. 화랑 원효의 전쟁주의는 제자 의명의 살생에 대한 질문에 “보살은 삼계중생을 다 죽여도 살생이 아니니라, 자비니라”라고 답변한데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광수가 그려낸 화랑 원효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전쟁주의자로서 이는 조선의 청년·학도를 일본군으로 만들어 죽음의 전쟁에 내몰기 위한 교묘한 설정이기도 했다. 화랑정신을 이용하여 일본 제국주의·군국주의의 침략전쟁에 조선의 청년·학도를 내몰고자 했던 이광수의 논조는 『원효대사』에 이은 『원술의 출정』(『신시대』 1944.6.)<sup>40)</sup>에서도 계속되었다.

#### 장면#2. 장혁주의 화랑 동원<sup>41)</sup>

장혁주는 「화랑도 정신의 재현. 젊은 학도의 길은 하나」(『매일신보』 1943.11.11.)를 통해 임진왜란 때의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내세워 일본의 중국 침략의 정당성을 선전·홍보하였고, 화랑정신을 내세워 조선의 청년·학도가 태평양전쟁에 용감히 참전할 것을 추동했다.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삼아 태평양전쟁 이후의 전쟁 상황에 착실히 대비해나갈 것을 호소한 것이다. 장혁주는 조선인이면서 일본어가 더 편했던 친일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대구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장혁주는 경주[경주계림보통학교]와 대구[대구고등보통학교]에서 공부했다. 대구가 장혁주를 기억에서 지우기 전에 장혁주가 먼저 대구 혹은 조선을 그의 삶속에서 지웠는지도 모른다.<sup>42)</sup> 하지만 장혁주의 화랑론은 신라시대 화랑의 주된 활동 무대이기도 했던 경북지방<sup>43)</sup>의 경주와 대구에서 유년·소년기를 보냈

40) 香山光郎(1944), 「元述の出征」, 『新時代』 4 (6), pp. 74-83.

41) 장혁주(1943), 「화랑도정신의 재현. 젊은 학도의 길은 하나」, 『매일신보』 1943. 11.11.

42) 정혜영(2018), 「대구문학관에는 장혁주가 없다」, 『매일신문』 2018.11.15.

43) 慶北·大邱·慶北公立高等女學校(1940), 「紀元二千六百年記念論文 內鮮一體精神新羅武士道」, 『文教の朝鮮(紀元二千六百年記念號)』 1940年 2月號, pp. 20-25.

던 사실과 무관치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면#3. 최남선의 화랑 동원<sup>44)</sup>

최남선은 「나가자 청년학도야」(『매일신보』 1943.11.20.)에서 “신라시대의 화랑들이 강적을 앞뒤에 두고서 통일의 대업을 향하여 매진 분투하는 광경”을 전면에 제시하면서 특별지원병으로 출진할 조선의 청년·학도는 신라의 청년들보다도 더욱 큰 광영을 얻을 수 있는 일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추동하고 “제군! 인생은 원래 가는 곳마다 학교이며 가는 곳마다 전쟁이다. 학창에서 진리 탐구에 정진하는 것도 일종의 전투일 것이며 전장에서 진리를 체험하는 것도, 또한 일종의 학문일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신라시대의 화랑보다도 더욱 분발 용약하는 마음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아 용맹 출진하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발견하는 것, 잡자는 혼을 깨우쳐 우리들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조선의 청년·학도가 대동아의 성전에 출진하는 것은 “신시대 신문화의 창조운동, 세계 역사의 개조” 작업에 “일본 국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 남아의 의기”를 보이는 것이라고 선동했다.

장면#4. 박종화의 화랑 동원<sup>45)</sup>

박종화는 「입영의 아침」(『매일신보』 1944.1.21.)에서 1944년 1월 20일, 첫새벽을 묘사하면서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에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피가 뛰는 북소리요, 가슴이 터지는 듯한 만세소리다. 반도학병이 책 대신 칼을 잡고 붓 대신 총을 잡아 갈충보국(竭忠報國)하러 왓작 일어서는 입영의 날이다”고 운을 뗀 뒤, “남대문을 나서니 열 패, 스무 패 학병의 떼가 밀렸다. 거리는 세기의 감격으로

44) 최남선(1943), 「나가자 청년학도야」, 『매일신보』 1943.11.20. 최남선은 선배격려단의 멤버로 1943년 11월 8일 경성을 출발해서 11월 11일 일본에 도착, 일본 내 각 대학의 궤기대회에 참여해서 격려사, 강연, 유세 활동을 펼치고, 11월 21일 조선으로 돌아왔다[류시현(2012), pp. 115-116]. 「나가자 청년학도야」는 최남선이 선배격려단으로 활동했던 당시의 강연 내용이다.

45) 박종화(1944), 「입영의 아침」, 『매일신보』 1944.1.21.

꼭 차고 말았다. 천 년 만에 보는 감격이었다. 천 년 만에 당하는 흥분이었다”고 말하고, 그 천 년에 대해 “옛날 고구려 때 이리했으리라. 신라 때 이리했으리라!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화랑님들이 이리했으리라”라며 조선의 청년·학도를 향해 “정정당당한 무적 황군”, “엄숙한 황군”의 길을 걸어나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추동하였다. 박종화가 「입영의 아침」에서 말한 1944년 1월 20일의 아침은 조선의 인재들이 검은 교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선에 투입되던 날의 아침이었고, 이는 훗날 ‘1·20 동지회’의 기억을 통해 질게 새겨진 햇빛 하늘의 아침이기도 했다.

#### 장면#5. 모운숙의 화랑 동원<sup>46)</sup>

모운숙은 「화랑」(『옥비녀』 1944.6.)에서 “…… 당신은 가셨습니다. 긴 말채찍과 화려한 창검의 문을 닫은 채 당신은 가셨습니다. …… 이제 당신이 오실 때는 왔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갑옷을 입으시고 씩씩한 밤을 지나 어서 나의 하늘로 발길을 옮기소서. 주립에 떠는 자, 자유에 목마른 자, 햇빛은 애기들의 기도 속에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천년의 검을 잡으시고 만대의 의지를 품으시와 사슬에 매인 당신의 현실을 구하사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당신이 오실 때”라는 말이나 “사슬에 매인 당신의 현실”이라는 말은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매우 어렵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신라시대의 화랑이 천년후의 화랑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심리를 보여준다. 모운숙의 화랑론은 「지원병에게」(『삼천리』 1942.1.), 「아가야 너는. 해군기념일을 맞아」(『매일신보』 1943.5.27.), 「어린 날개-히로오카 항공병에게」(『신시대』 1943.12.)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파악할 때에 그 저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sup>47)</sup> 덧붙이자면 ‘고전(古典)의 전국반(戰局盤)’이라며 등장한 전시체제용 군국가요 「화랑」(1942.8., 작사: 조명암, 작곡: 박시춘, 노래: 박향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46) 최동호·송영순 편(2009), 『모운숙시전집』, 서울: 서정시학, pp. 210-212.

47) 박군섭(2014), 「모운숙과 화랑: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교육사상연구』 28 (3), 한국교육사상연구회, pp. 49-50.

1940년대 전반의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여러 시각과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장면#1~5는 1940년대 전반의 식민교육의 실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다. 당시의 교육을 교육의 범주에 넣겠다면, 그것은 전쟁의 늪(전시체제, 총력전체제, 총동원령)에 빠진 교육이었고, 그 상황에서 인권과 존엄과 민주주의를 입에 담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언어도단이었다.

한 사례로 1943년 당시 경성제국대학 문과 3학년 재학생이었던 노자키 우지하루(野崎氏治)는 1943년 12월 시점의 경성제국대학에 대해 “경성제국대학의 소멸은 형식적으로는 일본제국의 붕괴와 함께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법문학부로 말한다면 이미 3년 전에 그 역사를 끝마쳤다. 그 증거로 1943년(쇼와 18) 12월 이래 법문학부의 구내에서 학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학생 전원이—조선출신의 학생까지도—군대에 차출되어 건물은 허허로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sup>48)</sup> 이는 1943년 8월, 식민권력이 “대동아전쟁의 결전적 단계에 부응해서 필승체제 강화를 위해 육해군 소속의 간부를 보충하는 목적”으로 학생 징집 연기제도를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칙령(칙령 제755호: 「在學生徵集延期臨時特例」)에 따른 형해화된 학교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sup>4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학교교육에 대한 회고 과정에는 전시체제=

48) 野崎氏治(1974), 「輓歌」,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 『紺碧遙かに』, 東京: 京城帝國大學同窓會, 정선이(2008), 「[자료해제] 경성제국대학 창립 50주년 기념지 『紺碧遙かに』: 식민지 조선의 제국대학 일본인 교수, 일본인 학생들의 관점」, 『한국교육사학』 30 (1), 한국교육사학회, p. 155에서 재인용.

49) 당시 경성제국대학 문과 3학년 재학생이었던 노자키 우지하루는 「재학생징집연기 임시특례」 칙령을 거론하면서 “조선인학생에게는 아직 징병제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하였고 이것은 겉으로는 지원이었으나 실체는 강제였었고” 학생들 앞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는 퇴학을 명한다”고 말했던 교관의 엄한 표정을 지금도 확실히 기억한다고 회고하였다[野崎氏治(1974), 정선이(2008), pp. 450-460에서 재인용].

총력전체제=총동원령의 파멸상<sup>50)</sup>은 논외로 한 채 당시의 교육이 완전성을 담보했다거나 전인교육을 지향·추구했다는 성찰 없는 회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사례로 1940년대 전반 경성사범학교 예과학생이었던 정범모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성사범학교는 예과 5년과 본과 3년의 8년제 초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이었고, 정범모는 경성사범학교 예과 5년간의 중등교육을 받았다. 정범모는 그 5년간의 학교생활에 대해 “그리운 한 전형적인 전인교육”, “더 신나는 것은 방과 후의 과외활동”, “다양한 학습경험과 문화경험을 제공하는 전인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오늘날의 학교교육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교육이라며 당시 경성사범학교 학창시절을 “언제나 그렇게 회고”한다고 했다.<sup>51)</sup> 이는 일제강점기, 특히 1940년대 전반의 학창시절에 대한 회고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장면이다.

정범모 뿐만 아니라, 당시 경성사범학교 출신들의 회고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기억에는 주요한 모티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의 사범교육은 보편적 교사교육을 지향했으며, 페스탈로치가 모범적인 교사상으로 강조되었고, 당시의 학교는 자유주의교육의 전당이었다는 인상들이 활성화되어 슬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2)</sup> 하지만 경성사범학교의 교육실천은 경성사범학교 졸업자들의 회고 내용, 그 기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들이 당시의 사범교육을 실제 경험과 다르게 선별적으로 기억·진술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과 삶의 궤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편적인 철학이나 교육사상을 원용하여 융합시키는 천황주의 이데올로기의 잠식성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53)</sup> 정범모가 전인교육의 전형

50) 민족문제연구소편(2010),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서울: 민연; 中川李枝子(2014), 「エッセイ: 昭和の子ども」, 木村伊兵衛外18人, 『寫眞家が捉えた昭和の子ども』, 東京: Crevis. pp. 162-163.

51) 정범모(2010), 『교육의 향방』, 파주: 교육과학사, pp. 406-409.

52) 안홍선(2007), 「식민지시기 사범교육의 경험과 기억: 경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의 회고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9 (1), 한국교육사학회, pp. 25-58.

으로 소개·회고한 당시 교육은 메이지시대 초대 문부상을 지냈던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순종적인 국민(從順な身体) 만들기를 근대화(近代化)의 지표로 삼았던 근대식교육의 연장선에 있음을 유의할 일이다.<sup>54)</sup> 순종적인 국민 만들기의 맥락을 짚어내지 못한 채 당시의 교육을 “그리운 한 전형적인 전인교육”이라면서 “언제나 그립게 회고”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학적 지평과 전망을 크게 비트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국근현대 교육사 연구 과정에서 당시의 학교교육, 누군가의 학창시절에 관한 회고·추억·그리움에 대해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대상으로 회고·추억·그리움을 표하는 행위에도 나름의 기준과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학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sup>55)</sup>

53) 안홍선(2007), pp. 25-58.

54) 권학준(2010), 「近代日本における‘国民’形成と兵式体操に関する一考察」, 『일본어문학』 49, 한국일본어문학회, pp. 385-406.

55) 가해자일본은 피해자한국을 향해 함부로 그리움을 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原佑介(2011), 「그리움을 금하는 것: 조선식민자 2세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와 조선에 대한 향수」, 『일본연구』 15,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原佑介(2012),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와 최규하(崔圭夏)」, 『사이間SAI』 12, 국제한국학문화학회].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식민자 2세였고, 당시 대구중학교 학생이었던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의 기억에 의하면, 최규하(장씨개명: 梅原圭一)가 1937년 4월에 동경고등사범학교 영문과에 입학하여 1941년 3월에 졸업하고, 1941년 5월, 대구중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해서 겪은 일, 결국 일본인 학생들—식민자 아들들에게 그의 조선인이라는 정체가 타로 나고, 그로부터 조선의 땅에서 조선인 교사는 일본인 학생들로부터 무시·멸시·모욕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만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일본인 학생들이 조선인 교사를 학교에서 밀어낸 그때 그 사건을 되짚어보면서 식민자의 자녀로서 식민지를 살아갔던 사람들—재조일본인을 향해 “평범하고 평화롭고 무해한 식민자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고바야시 마사루가 1957년의 단편소설 「일본인중학교」(日本人中学校)와 1971년의 에세이 「그립다」고 해서는 안 된다」(「懐しい」と言ってはならぬ)에서 말하고자 했던 사상적 핵심, 문학의 원점은 조선에 대한 향수의 거부이다[原佑介(2011), pp. 311-332; 原佑介(2012), pp. 137-166]. 아무나 함부로 그 누구를, 그 무엇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는 일제강점기의 식민교육을 회고·성찰하는 중요한 입각

1940년대 전반은 가히 화랑 동원의 시대라고 일컬을만하다. 1940년대 전반의 교육은 전쟁의 광기에 교육이 빨려든 시대였다. 그것은 회고·추억·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요하는 시간적 장면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화랑은 일본의 전쟁주의·전시체제에 맞게 주조해낸 인재상이기도 했다. 일본의 관계·관변 연구자들이 화랑의 본질을 전사집단에 두고, 그 수반적 습속으로 무속·제의적 기능과 성적 향락·유희를 일삼는 집단으로 규정했던 것은 그 해석에 그들의 식민욕망이 짙게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화랑은 일본의 전쟁주의·군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작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고, 성전=죽음의 미학을 선동·추동하는 핵심어이기도 했다. 1940년대 전반의 화랑 담론, 그 핵심은 조선의 청년·학도에게 학도병으로 나아가 태평양전쟁에 용감히 싸우다 죽으라는 의미였다.

1940년대 전반, 친일 지식인·문인들은 조선의 청년·학도를 전장에 보내는 방편으로 화랑을 끌어들었는데, 이를 화랑의 소환, 화랑의 동원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식민교육의 시대, 신라의 인재 화랑은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의 청년·학도를 태평양전쟁의 제물로 삼기 위한 방편으로 불러낸 인재상이었다. 화랑 동원의 시대, 1940년대의 교육은 최남선이 그랬던 것처럼, 화랑을 앞세워 “인생은 원래 가는 곳마다 학교이며 가는 곳마다 전쟁”이라고 가르쳐야 했는가. “학창에서 진리 탐구에 정진하는 것도 일종의 전투일 것이며 전장에서 진리를 체험하는 것도, 또한 일종의 학문”이라고 가르쳐야 했는가.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와 같은 궤변은 당시 식민교육의 본질을 가장 실감나게 그려낸 것이기도 했다. 어느 누구도 1940년대 학교교육에 대해 이를 낭만의 대상으로 삼거나 교육학이론을 적용하여 미화·두둔하거나 회고·추억의 장면으로 그리고자 한다면 이는 당시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오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4. 해석과 전망

화랑 연구가 일제강점기에 식민교육 담론의 대상으로 떠오른 이래, 화랑 교육의 본질, 화랑 교육의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석이라는 합리적 논점은 확보되지 못하였다. 그들의 관심사는 화랑의 본질이나 그 교육을 위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랑의 이름으로 조선의 청년·학도를 불러내어 전쟁의 제물로 삼는 데 있을 뿐이었다. 일제강점기의 화랑 연구의 식민성, 그리고 친일 지식인·문인들의 화랑 동원 담론은 화랑제도의 전형적인 왜곡·굴절 양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신라의 멸망과 더불어 화랑은 역사에서 사라졌으나, 일제강점기, 특히 1940년대 전반에는 역사 속의 화랑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 조선의 청년·학도에게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청년·학도가 화랑의 이름으로 출진하여 전쟁터에서 죽어갔다. 당시 화랑 담론을 통해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한 자들은 다름 아닌 기성 지배엘리트들, 특히 친일 지식인·문인들이었다.<sup>56)</sup>

일제강점기, 그것도 1940년대 전반의 친일 지식인·문인들에 의한 화랑 동원 담론은 화랑에 대한 논의 지평의 심각한 왜곡·굴절 양상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해방 이후의 화랑에 대한 논의 지평을 울퉁불퉁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도 화랑제도가 국가이념의 차원을 확보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직후의 이데올로그들에 의한 화랑 담론은 일제강점기의 화랑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계승·반복한 측면이 큰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이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의 신라(남방문화권)와 고구려(북방문화권)의 분할을 피하는 방식은 해방 이후의

56) 정종현(2006), pp. 179-206.

남한(신라정신)과 북한(고구려정신)의 대결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바뀐 것인데, 신라(남방문화권)-남한(신라정신)의 핵심은 바로 화랑정신이였다. 신라시대의 화랑은 교육·수련활동의 차원과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 속의 화랑론은 식민권력의 전쟁욕망, 군사정부의 집권욕망, 게다가 지자체의 상업욕망에 의해 왜곡·변질되어왔다. 전쟁욕망에 의한 화랑 왜곡을 제1의 실패, 집권욕망에 의한 화랑 왜곡을 제2의 실패, 상업욕망에 의한 화랑 왜곡(의 가능성)을 제3의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 이후 화랑정신은 집권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1946년에 철학자 안호상은 이범석 장군과 함께 화랑정신을 계승하는 관점에서 우익청년단인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을 꾸렸으며 이를 대한청년단에 합류시킨 후에는 감찰위원장과 훈련위원장으로 활동했다.<sup>57)</sup> 안호상은 화랑정신과 일민주의 철학을 표방하는 가운데 이승만 정권의 이념노선을 뒷받침했으나 이는 결국 부당한 정권의 집권욕망을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sup>58)</sup>

1960년대의 박정희는 우리의 역사를 타파해야 할 인습으로 보는 부정적 역사관을 지녔으나, 1970년대에 들어 역사적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민족문화와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1970년대의 전환된 역사관의 중심에는 신라가 있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찬란한 문화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가 되었고 화랑제도는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민족의 민족정신으로 강조되었다.<sup>59)</sup> 무엇보다 화랑도를 민족통일의 원동력과 총화단결의 상징적 존재로 높게 평가

57) 김석수(2008), 『한국현대실천철학: 박종홍부터 아우토노미즘까지』, 파주: 돌베개, p. 97.

58) 김석수(2008), p. 97.

59) 최광승(2012), 「박정희의 경주고도 개발사업」, 『정신문화연구』 126, 한국학중앙연구원, pp. 183-214.

하면서 우리 모두 화랑정신을 본받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할 것을 말하였다. 1973년 5월 30일, 국가는 경주에 화랑교육원을 설립하여 국가-국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조하였다. 학생을 비롯한 교사, 사관생도, 공무원들은 화랑교육원에서 합숙하며 국민교육현장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가가 원하는 주체성을 가진 인간상을 만드는 화랑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았다. 응당 화랑교육원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철저히 군대식이었다.<sup>60)</sup>

하지만 당시 화랑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학도호국단 부활(1975.5.21, 국무회의에서 학도호국단설치령 심의·의결), 대한구국십자군 창군식(1975.6.21, 배재고등학교. 16개 개신교단 1,800여 명의 창군대원 참가), 제1회 대한구국십자군 화랑수련대회(1975.7.18~19, 경주 화랑의 집)로 이어지는 시계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구국십자군 화랑수련대회에서는 화랑이 1000여 년 전 신라 구국의 선봉이었던 것처럼, 기독교도들도 어려움에 처한 나라에서 구국의 선봉이 되자는 다짐을 주고받았는데, 이는 화랑정신을 계승하여 유신과업을 완수하자는 취지였다.<sup>61)</sup> 구국십자군이라는 말은 1948년의 여수-순천 10·19 사건에서부터 사용된 개념이며, 그 기본 값은 공산군의 대항개념으로서의 십자군이었고, 이는 1975년의 대한구국십자군 창군식을 거치면서 화랑의 명칭을 추가로 달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랑과 십자군의 결합은 생경한 조합이 아닐 수 없다.

근현대사 속의 화랑 담론 및 그 응용편은 모두가 사실상 화랑 교육의 본질, 화랑 교육의 방법을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화랑의 도의·가악·여행을 통한 수련활동이라는 방법의 철학에 대한 고려는 진지하게 이루어지

60) 최광승(2014),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화랑도와 화랑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237-275.

61) 미공개 대한뉴스\_KC 제1041호(1975.7.26.):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http://www.chistory.go.kr>)

지 못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화랑의 본질은 화랑-전사단-전쟁-죽음이라는 키워드에 의해 왜곡·굴절되었고, 해방이후에도 사실상 화랑에 대한 제대로 된 추적과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화랑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기억되기보다는, 일제강점기에는 전쟁범죄에 동원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권력욕망의 충족을 위한 선전 도구로 이용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화랑제도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논의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오늘날 공부에 대한 인식의 협애성을 탈각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육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화랑제도는 교육에 관한 원초적 사유를 포착할 수 있는 교육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랑의 교육·수련활동은 학교라는 좁은 틀 안에서 삶을 파악하지 않고 삶의 무대 전체를 활동공간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도의·가악·여행을 단체 수련활동의 목적과 방법으로 삼았다. 화랑은 그러한 수련활동을 통해 세상을 넓게, 크게,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그들에게 자연산수·명산대천은 단순 행락과 유희의 공간이 아니라 큰 배움과 넓은 수행의 터전이었다. 한국근현대사 속의 일그러진 화랑의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충실한 사료 해석과 함께 교육에 대한 논의 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성찰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화랑 교육, 그 방법론적 구상의 가치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범주와 지향을 재구성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랑제도에 대한 관심과 천착과 논의는 우리 교육의 오래된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화랑 교육의 방법에서 교육의 오래된 미래를 찾았다면 학생을 동원하는 방식의 수련활동, 교육패러다임과 겹도는 수련활동, 상업주의에 오염된 수련활동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화랑 교육은 제1의 실패, 제2의 실패에 이어 제3의 실패를 겪을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顔氏家訓』, 『佔畢齋集』, 『秋江集』, 『退溪集』, 『槥所覆瓿藁』, 『研經齋集』, 『雅言覺非』.

### 【논저】

권덕영(2011), 「[서평] 신라 멸망을 보는 새로운 시각: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해안, 2010」, 『지역과 역사』 29, 부정역사연구소.

\_\_\_\_\_ (2012), 「화랑 관창의 추억」, 『신라사학보』 24, 신라사학회.

권학준(2010), 「近代日本における‘国民’形成と兵式体操に関する一考察」, 『일본어문학』 49, 한국일본어문학회.

김기흥(2003), 「화랑 설치에 관한 제 사서의 기사 검토: 김대문 『화랑세기』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88, 역사교육연구회.

김석수(2008), 『한국현대실천철학: 박종홍부터 아우토노미즘까지』, 파주: 돌베개.

김상현(1999), 『신라의 사상과 문화』, 서울: 일지사.

김인회·정순목(1974), 『한국문화와 교육』,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민족문제연구소편(2010),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서울: 민연.

류시현(2012), 「태평양전쟁 시기 학병의 감성동원과 분노의 기억: 학병수기집 『청춘만장』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박균섭(2006), 「화랑제도에 대한 일본인 연구자들의 시각 비판」, 『교육학연구』 44 (2), 한국교육학회.

\_\_\_\_\_ (2014), 「모운숙과 화랑: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교육사상연구』 28 (3), 한국교육사상연구회.

박종화(1944), 「입영의 아침」, 『매일신보』 1944.1.21.

안경식(2019), 『신라인의 교육, 그 문명사적 조망』, 서울: 학지사.

안홍선(2007), 「식민지시기 사범교육의 경험과 기억: 경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의 회고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9 (1), 한국교육사학회.

이강엽(2016), 「『삼국유사』 <제48대 경문대왕>조 텍스트의 안과 밖」, 『구비문학연구』 43, 한국구비문학회.

- \_\_\_\_\_ (2017),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해석과 교육」, 『우리말글』 75, 우리말글학회.
- 이계학(2004), 「외길 인생 40년을 돌아보며」, 『평암 이계학 교수 고별강연록』 2004.8.27,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광수(1942, 1975), 『원효대사(상, 하)』, 서울: 삼중당.
- 이문기(1990),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의 사료적 검토」, 『역사교육논집』 15, 역사교육학회.
- \_\_\_\_\_ (2014), 「『삼국사기』·『삼국유사』에서 본 신라 화랑도의 여행」, 『동방한문학』 59, 동방한문학회.
- 이혜진(2008), 「전쟁과 문학: 총력전하의 전쟁문학 작법: 『보리와 병정』, 『전선 시집』, 『전선기행』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장혁주(1943), 「화랑도정신의 재현. 젊은 학도의 갈 길은 하나」, 『매일신보』 1943.11.11.
- 정범모(2010), 『교육의 향방』, 파주: 교육과학사.
- 정선이(2008), 「[자료해제] 경성제국대학 창립 50주년 기념지 『紺碧遙かに』: 식민지 조선의 제국대학 일본인 교수, 일본인 학생들의 관점」, 『한국교육사학』 30 (1), 한국교육사학회.
- 정종현(2006), 「국민국가와 화랑도: 애국계몽기-대한민국 건국기의 화랑 담론과 활용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 (4), 한국학중앙연구원.
- 정혜영(2018), 「대구문학관에는 장혁주가 없다」, 『매일신문』 2018.11.15.
- 최광승(2012), 「박정희의 경주고도 개발사업」, 『정신문화연구』 126, 한국학중앙연구원.
- \_\_\_\_\_ (2014), 「유신체제기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 프로젝트: 화랑도와 화랑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최광식(2016), 「신라의 화랑도와 풍류도」, 『사충』 87,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최남선(1943), 「나가자 청년학도야」, 『매일신보』 1943.11.20.
- 최동호 · 송영순 편(2009), 『모운숙시전집』, 서울: 서정시학.
- 최재석(1987), 『한국고대사회사방법론』, 서울: 일지사.
- \_\_\_\_\_ (1987), 『한국고대사회사연구』, 서울: 일지사.
- 최종성(2013), 「어둠 속의 무속: 저주와 반역」, 『한국무속학』 27, 한국무속학회.
- 한국일보(2019), 「‘화랑 105명 다녀가다...’ 동굴에서 발견된 1200년 전 글씨」,

- 『한국일보』 2019.4.28.
- 1·20 동지회 중앙본부 편(1972), 『청춘만장: 태평양전쟁에 끌려갔던 학병수기집』, 대전: 농경출판사.
- 慶北·大邱·慶北公立高等女學校(1940), 「紀元二千六百年記念論文 內鮮一體精神新羅武士道」, 『文教の朝鮮(紀元二千六百年記念號)』 1940年2月號.
-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1974), 『紺碧遙かに』, 東京: 京城帝國大學同窓會.
- 張伯偉(1997), 「花郎道與魏晉風流關係之探討」, 『東方漢文學』 13, 東方漢文學會.
- 香山光郎(1944), 「元述の出征」, 『新時代』 4 (6): 74-83.
- 中川李枝子(2014), 「エッセイ: 昭和の子ども」, 木村伊兵衛外18人, 『寫眞家が捉えた昭和の子ども』, 東京: Crevis.
- 原佑介(2011), 「그리움을 금하는 것: 조선식민자 2세 작가 고바야시 마사루와 조선에 대한 향수」, 『일본연구』 15,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 \_\_\_\_\_ (2012),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와 최규하(崔圭夏)」, 『사이間SAI』 12,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今村靉(1928), 「新羅の花郎を論ず」, 『朝鮮』 161.
- 鮎貝房之進(1932), 『花郎攷(雜攷4)』, 京城: 近澤出版部.
- 池內宏(1929), 「新羅人の武士的精神について」, 『史學雜誌』 40 (8).
- \_\_\_\_\_ (1936), 「新羅の花郎について」, 『東洋學報』 24 (1), 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 所收.
- 三品彰英(1943), 『新羅花郎の研究』, 이원호 역, 『신라화랑의 연구』, 서울: 집문당.

원고 접수일: 2019년 7월 11일

심사 완료일: 2019년 8월 9일

게재 확정일: 2019년 8월 11일

ABSTRACT

---

A Critical Study on the Coloniality of  
Hwarang Discourse:

Focused on the Discourse of Hwarang Mobiliz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1940s

Park, Kyoon-seop\*

The Hwarang (flower youth corps) system of Silla can be said to be an exceptional human resources training system that is unparalleled in world history of education. Due to limitations of the historical data, there are difficulties in grasping the process by which the Hwarang system appeared and disappeared. However, through information provided by Kim Boo-Shik's *Samgooksagi* and Ilyeon's *Samgookyosa*, much can be read in terms of the character of the system. It can clearly be seen that the Hwarang system used music, travel, and training activities through morals as a method of education. This can be called education through *poongryoo* in accordance with the preface of *Nanrangbi* of Choi Chi-Won. However, in the 20th century, the Hwarang system came to be distorted and refracted for the purpose of colonial education by the scholar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pro-Japanese intellectuals and writers. In terms of its nature, an acknowledgment of its education and methods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isappeared. What emerged was a bizarre scene in which the Hwarang of Silla became transformed into a Japanese imperial soldier of the Asia-Pacific War. As such, although the Hwarang system had contributed to the fostering and production of talented youths in the Silla Period, in the course of modern research and discussion, they came to be transformed into Japanese troops advancing into the Asia-Pacific War. After a thousand years, Hwarang had become a tool for political and military use, and detached from discussions about education.